



카아드目録 排列上의 諸問題 <1>

「韓國排列規則」制定을 위한 一試案

朴 尙 均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司書課長〉

1. 緒 言

圖書館資料를 整理 運用하는데 있어서 分類·目録 못 지 않게 重要한 要素를 이루고 있는 것이 目録카아드 排列인 것이다. 그런데 分類에는 우리 손으로 完成한 「韓國十進分類法」(KDC)이 1964년 5월에 발간되었고 그 2년 후인 1966년 5월에 修正版이 나오고 그로부터 14년 만인 1980년 9월 경에 改正增補版인 第3版이 發行 豫定에 있으며, 目録作成에 있어서는 그 基本이 되는 法律인 「韓國目録規則」(KCR)이 이미 制定되어 1964년 4월에 그 初版이 나오고 1966년 4월에는 修正版이 나왔으며 다시 그 改正 3版이 역시 14년 만인 1980년 10월 경에 나올 豫定이다.

韓國十進分類法은 獨이十進分類法의 組織을 따르면서 우리 韓國 및 東洋關係의 主題와 固有文獻의 分類 展開를 위해서 制定한 分類表이고, 「韓國目録規則」은 美國圖書館協會 目録規則과 1961년 10월에 決議된 國際目録會議의 目録規則 등을 충분히 參考해서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制定된 것으로서, 韓國圖書館協會 分類·目録分科專門委員會는 그런대로 分類·目録作業의 合理化 및 能率化를 이룩하고자 標準的인 整理道具를 만들어 各 圖書館의 實務指針書로서 널리 活用되고 있어 其 寄與한 바가 크다.

그러나, 整理作業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카아드 排列을 위한 規則은 圖書館學이 이 땅에 定着한 지 30년 이 가까워온 오늘날까지도 放置된 채 아직도 그 制定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래서 現在 排列의 問題는 全國的인 統一을 期하지 못하고 各 圖書館마다 慣例에 依하여 排列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標準的인 目録카아드의 排列規則이 없기 때문에 東書카아드 排列에 있어서는 張一 世 著인 「韓國目録規則解説」중 '카아드 排列' 項目과

日本目録規則 중 '排列法' 등을 參考로 하고 있는 것 같고 洋書카아드 排列은 ALA 排列規則이나 LC 排列規則 등을 주로 應用하여 大部分이 不分律로서 排列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로 볼때 그동안 目録카아드 排列問題는 그에 대한 研究가 거의 進行되지 않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 같다.

그러한 實情임에도 不拘하고 아직까지 韓國圖書館學界나 韓國圖書館協會 目録分科專門委員會에서는 「韓國 排列規則」 制定을 위한 關心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理由는 무엇일까.

筆者의 管見일 뿐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韓國排列規則」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重要한 이유 중의 하나는 目録規則과 目録카아드 排列規則과는 밀접한 相關關係에 있는데 그동안 完全하고도 標準的인 目録規則(KCR)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標準的인 目録카아드의 排列規則의 制定이 늦추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먼저 標準的인 目録規則의 制定을 서둘러야 했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韓國目録分科專門委員會에서 制定한 「韓國目録規則」(KCR)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으로는 各 圖書館의 資料整理에 從事하는 圖書館人의 統一된 嚮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晩時之嘆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은 다행히 「韓國目録規則」(1966年版)의 未備한 點을 大幅 是正 增補를 加한 第3版이 14個星霜 만에 우리 앞에 곧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니 자못 그 기대가 크다.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新目録規則」은 그동안 李載喆教授를 비롯 몇몇 目録分科委員諸位의 꾸준한 努力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차제에 「韓國排列規則」의 制定作業도 뒤이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실상 圖書館學科 出身들이 一線司書로서 實務에 임했을 때 一般的으로 分類·目録作業은 그런대로 할 수

있지만은 目錄카드 排列作業 만은 거의 당황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 이유는 圖書館學 4년 동안에 「目錄카드 排列法」같은 것을 배운 일이 없는 때문인 것 같다. 구태여 배운 것이 있다면 排列에는 字順別排列(Letter by Letter)과 語順別排列(Word by Word)의 두 가지 方法이 있다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서 실무에 임했을 때 廣範圍하고 複雜多様な 카아드 排列을 差誤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는 不問可知라 할 것이다.

筆者가 서울市內 各大學 圖書館學科의 在學生 또는 卒業生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로는 현재 圖書館學科에서 「目錄카드 排列法」을 따로 講義하고 있는 大學은 한곳도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圖書館學科에서 目錄카드 排列法을 가르치지 않은 理由는 무엇일까.

目錄은 그 카아드 排列法에 差誤가 생기면 目錄으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圖書館學教育이 現場教育에는 너무 소홀이 하고 있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原因으로 해서 각 圖書館마다 어떤 原則이 없이 排列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각 圖書館이 어떤 原則에 입각하여 統一性 있는 排列을 하기 위해서는 「標準的인 排列規則」의 制定이 時急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美國에서는 1942년에 ALA에 의하여 排列規則(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을 制定하였고, 1962년에 ALA編纂委員會는 ALA目錄카드 排列規則小委員會까지 設置하여 排列에 관련된 諸事項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圖書館界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아직까지 放置해 두고 있다는 것은 크게 反省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이에 대한 研究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圖書館學界나 또는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分科專門委員會와 같은 機構를 통해 이 問題를 公式으로 다루었던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研究가 進行된 것은 圖書館學 教授에 의해서가 아니라 多年間 一線實務에 경험이 풍부한 몇몇 圖書館人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事實이다.

즉 1948년 10월에 國立圖書館에서 펴낸 朴奉石 編인 「朝鮮東書編目規則」第10章에 「書票排列法」이 있다. 이 規則은 20條項의 大原則 만이 提示되어 있어 現代圖書館이 가진 雜多한 排列의 問題를 解決하기엔 너무도 간결하다. 그러나 우리의 國情 및 精神에 適合한 排列法이라는 데 그 意義가 크며 우리나라 최초의 排列法으로써 우리 斯界에 있어서는 一大 快舉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國會圖書館報 1967년 1월호와 3월호에 連

載된 玄圭燮 씨의 「韓國의 目錄排列規則 制定을 위한 豫備作業論攷」란 論文이 있다. 「排列法」에 관한 論文으로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規則으로서의 原則만 다루어졌을 뿐이고 實際 排列上에 있어서의 도움은 주지 못하였다. 그후 1968년 8월에 韓國圖書館協會에서 펴낸 張一世 著인 「韓國目錄規則解說」중 「카아드 排列法」項目에서 비로소 排列法을 決定 지우는 基本的인 法則 뿐 아니라 排列上의 실제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이 排列規則(案)은 그후 東書 排列의 경우 모든 圖書館에 있어서 카아드 排列上의 指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간단한 排列方式은 이것으로 解決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排列上의 難點들을 解決하는 데는 아직도 未治한 點이 많다. 다음으로 洋書 排列에 있어서는 1970년에 韓國圖書館協會에서 刊行된 孫成祐·李朝赫 共編인 「洋書目錄法」중에 있는 「카아드 排列法」을 參考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排列規則은 編者가 同書에서 밝힌 바와 같이 ALA辭典體目錄 排列規則에 따른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도 細則이 너무 不足하여 실제 排列問題에 있어서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그후 1973년에 李丙洙씨에 의해 「ALA目錄카드 排列規則」(第2版) 完譯版이 韓國圖書館協會에서 出版되어, 그후 各圖書館의 洋書 排列은 거의 이 「ALA目錄카드 排列規則」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譯者 李丙洙 씨도 이 책의 머리말에서 지적하였지만 이 「ALA目錄카드 排列規則」은 洋書目錄카드를 排列함에 있어서는 完全하다 할 만큼 상세하고 專門的이어서 장차 우리나라에서 標準的인 排列規則을 制定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以上에서 叙述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圖書館界는 우리 實情에 알맞은 標準的인 「韓國排列規則」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圖書館마다 排列上의 混亂이 커져가고 있어 利用上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排列上의 諸難點들을 完全히 解決할 수 있는 「排列法」의 成案이야 말로 圖書館界가 안고 있는 가장 時急한 當面 問題가 아닐까 생각한다.

筆者는 현재 一線實務者들이 겪고 있는 排列上의 여러가지 隘路를 解決하는데 多少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장차 있을 「韓國排列規則」制定에 一助가 될까 해서 처음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本格的으로 다루고 싶은 마음에서 우선 서울 시내 各大學 圖書館에서 하고 있는 排列의 慣行 및 排列의 問題點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고 實務者들과 意見交換도 가져보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막상 생각하니 혼자 힘으로 이 龐大한 事業을 손엔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判斷이 서서, 本稿에서는 筆者가 소속하고 있는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의

東書排列法(案)부터 成案해서 排列上的 諸問題들에 대하여 일일이 그 實例를 列舉해 보코자 한다.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東書排列法 試案은 朴奉石씨의 書票排列法·張一世 씨의 排列規則(案)·日本目錄規則 第20章「記入의 排列」과 ALA 排列規則 등을 많이 參考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同 排列法은 現在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그대로 適用 實施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制定할 排列規則에 대한 하나의 試案에 不過하다.

II.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 東西 排列規則(案)

가. 著者·書名目錄

1) 한글을 標目으로 한 모든 카아드는 字順(Letter by Letter)에 따라 가나다 順으로 排列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例外的으로 處理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著者名으로 記入된 카아드는 同一한 姓을 함께 모은 다음 이름의 字順에 의하여 排列한다. 外國人名도 한글로 翻字 表記한 것은 위의 原則에 따른다.

例 1:

이, 강길
이, 차춘
이, 탄허
이, 행원
이두의 연구
이민정책
이조전국비화

例 2:

남궁, 봉(南宮, 鳳)
남궁, 원(南宮, 遠)
덜레스, 알렌(Dulles, Allen)
도빈, 케이 피(Dobin, K.P)
민, 경빈(閔, 慶彬)
배, 춘식(裨, 春植)
스즈끼, 신파로(鈴木, 新太郎)
아라이, 요시오(新井, 義雄)
이, 광수(李, 光洙)

圖書館에 따라서는 著者名의 한글 標目に 있어서 同姓의 경우, 記述의 著者表示에 적힌 漢字姓을 字劃에 따라 小劃을 多劃 앞에 排列하고 있는 데도 있다.

例 :

진, 석일(田, 錫一)
진, 학수(田, 學洙)
진, 후기(田, 後基)
진, 강의(全, 康義)
진, 병찬(全, 秉瓚)
진, 상렬(錢, 相烈)
진, 창성(錢, 昌成)

② 團體名 또는 統一標目으로 記入된 카아드 중 主標目과 副標目이 終止符(Period)에 의해 區分된 경우는 語順(Word by Word)에 따라 排列한다.

例 1:

한국. 경제기획원
한국. 국방부
한국. 농림부
한국. 재무부
한국. 체신부
한국개발공사
한국경제정책
한국관세협회
한국당쟁사
한국도서편집회
한국마정고
한국무역협회
한국부흥상
한국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은행. 외환부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회화사

例 2:

불전. 금강경
불전. 능엄경
불전. 대장경
불전연구
불전해석

2) 東書 및 古書의 제1차 배열은 記入된 標目を 다음 표의 한글 音節 單位의 子母順으로 排列한다. 만약 初聲(子音)과 中聲(母音)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또 다시 終聲(받침) 順대로 排列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初聲(子音) :

이, 복속
이, 성계

7) 姓은 알 수 없고 이름만 아는 것은 이름을 한 單位로 보아 그 음절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例 :

임, 상희
전, 희백
점돌
정, 비석

8) 姓名을 전연 알 수 없으나 號만은 알 수 있는 것은 號의 음절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例 :

송, 진상
수, 국향
수산……(號)
숙명여자대학교

9) 團體名

a) 團體名의 冠稱

단체명에 붙은 조직체 표시의 冠稱은 目錄記入할 때 標目에서 省略하고 있지만 이미 標目語로 記入되었을 경우에도 배열에서 무시한다.

例 1:

株式會社 正音社는 정음사로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는 한국도서관협회로
각각 배열한다.

b) 團體名이 人名으로 시작된 것은 人名 배열 원칙에 따라 그 人名이 해당하는 곳에 배열한다.

例 2:

김, 순권
김 순권 건축사무소
김, 신호
김 신호 건설주식회사

c) 團體名이 꼭 같은 것은 그 團體의 設立年度 또는 所在地로서 구별한다.

例 3:

대한건설주식회사, 부산.

대한건설주식회사, 서울.

10) 同一著者의 著作은 다음 順位에 따라 排列한다.

- ① 全集
- ② 選集
- ③ 單行書
- ④ 共著書 合著書 共編書 編纂書
- ⑤ 譯書 共譯書

11) 人名 地名이 同一한 語나 句로서 되는 경우는 人名 地名의 순서로 배열한다.

例 :

워싱턴(人名)
워싱턴, 조지
워싱턴, 헨리
워싱턴(地名)
워싱턴
워싱턴 도서관
워싱턴 의회

12) 著者 共著者 編者 插圖者 譯者 등의 著者名은 基本記入이나 副記入에 關係 없이 모든 記入을 同一하게 第1次 排列한다. 同一한 著者名일 때에는 書名을 第2次 排列한다.

例 :

공, 정호.
英文讀解法, 孔貞浩 著.
공, 정호, 역.
綜合英語의 新研究, 南尾 好雄著,
孔 貞浩 譯.

13) 二次著者記入과 基本著者記入을 混合排列할 때에는 二次記入카야드에 表示된 基本記入으로 채택된 著者名은 배열에서 무시되고 書名順으로 2次 排列을 한다.

例 :

방, 기환, 역.
시르도, 레이.
바람아 이 등불을 끄지 말아다오.
城戶 禮 著, 方 基煥 譯.

방, 기환, 공저.
김, 윤성.

옛날에 옛날에, 金 潤成, 方 基煥 共著.

김, 병화.
교육원리.

14) 著者名 分出카드의 2次排列은 分出된 書名順에 의한다. 만일 2次排列基準인 書名이 동일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基本記入 順에 의한다.

② 新刊書와 古書가 있는 경우는 新刊書를 앞에 排列한다.

例 :

김, 응제, 편.
러시아篇
世界野談史話全集

例 2:

일연.
삼국유사(新刊書)

김, 응제.
御史朴文秀
韓國風流野談選集

일연.
삼국유사(古書)

김, 응제, 편.
印度篇
東洋野談史話全集

17) 原書와 翻譯書가 있으면 翻譯書를 原書 다음에 排列한다.

例 :

갈, 만리.
도서판본학요약(原書)

15) 各種 記入에 있어서 標出된 書名이 同一한 경우는 그 <著者 編者 注釋者 校訂者> <出版社> 등의 字順에 따라 排列한다.

갈, 만리.
도서판본학요약(翻譯書)

例 1:

경제사
고, 승제

18) 古書만인 경우는 다음의 順位에 따라 排列한다.

- ㉠ 稿本과 刊本の 順으로
- ㉡ 稿本이 아닌 寫本인 경우는 刊本과 寫本の 順으로
- ㉢ 國別刊本이 있는 경우는 韓國版 中國版 日本版의 順으로
- ㉣ 同一國의 刊本에 있어서는 刊行年代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順으로
- ㉤ 刊行年代가 있는 것은 그 順으로
- ㉥ 刊行年代가 확실치 않은 경우 佛書와 같이 刊行者가 明記되어 있으면 그 字順으로
- ㉦ 寫本에 있어서는 冠稱이 있으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順으로

경제사
최, 문환

例 2:

세계문학전집. 고금출판사.
세계문학전집. 동아출판사.
세계문학전집. 율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 정음사.

16) 同一한 著者 編者 등의 著作으로서 書名까지 同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排列한다. 無著者名 古典으로서 書名이 같은 경우도 이에 依擔한다.

① 新刊書는 版次 또는 刊行年代의 逆順으로 하여 最新版을 앞에 排列한다.

例 1:

김, 병화.
교육원리. 改正版.

例 :

춘향전
교주 춘향전

19) 一部 圖書로서 正編, 續編, 補編 등이 있을 때에는 정편, 속편, 보편 순으로 배열한다.

20) 批評書 注釋書는 原著者 다음에 批評者 注釋者 姓名의 字順에 따라 排列한다.

21) 外國文字

a) 日本圖書로서 漢字와 카나(假名)를 混用하여 標

뒤으로 한 것은 모두 日本音으로 標記하여 排列한다.

例 :

가부시끼가이샤니 오게루 시혼도 리에끼.
니시야마, 다다노리.
株式會社における 資本と利益, 西山忠範著

위의 例와 같이 漢字와 카나(假名)가 混合된 書名일 경우, 目錄作成者가 日本語를 音讀할 수 있는 實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原名表記가 어렵고 誤記의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排列上의 混亂을 避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에서는 著者나 書名이 모두 漢字로만 쓰여 있을 때에는 우리 音으로 읽어 排列하고 있다. 예를들면 '源氏物語'는 '겐지모노가다리'가 아닌 '원씨물어'로, 그리고 카나(假名)가 섞여 있을 때에는 漢字는 우리 音으로 읽되 카나(假名)만을 日本音으로 읽어 배열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데도 있다. 즉 앞의 書名 例의 경우, "주식회사니 오게루 자본도 이익"으로 表記하는 弊이다.

b) 西洋人名, 書名 등은 그 發音대로 表記한다.

例 :

엔엔-다이야칼일 카바모일 크로라이드스의
친핵성 치환반응에 관한 연구.
김, 시민.
NN-Dialkylcarbomoyl Chlorides의 親核性
置換反應에 관한 研究, 金時敏著.

위의 例와 같이 學術書名을 한글化하여 排列을 하고 있으나, 로마자는 發音體系가 한글에 과부족하여 發音과 表記가 반드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目錄者가 翻字表에 의해 表記를 할 때 目錄者마다 翻字과정에서 錯誤와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學名일 경우 音讀法이 달라질 수도 있어 專門家에게 일일이 문의한 다음 表記하여 排列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理工系 碩·博士學位論文들의 書名을 정확히 표기하기란 어렵다.

22) 外國語를 發音 그대로 表記한 標目으로서 長母音을 사용한 표기는 그것을 省略하여 排列에서 無視한다.

例 :

기구다, 고이찌.
犯罪學, 菊田幸一著.

기구다, 고오이찌.

犯罪學, 菊田幸一著.

23) 外國의 人名, 地名 기타 固有名詞는 一般적으로 習慣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 慣用音으로써 統一標記한다.

例 :

슈바이처→취바이처→슈우바이처→시바이처.

뉴욕→뉴우욕→뉴우요크→뉴우오오크.

이 경우 標準 慣用語辭典이 普及되어 있지 않아 目錄者가 慣用名을 選定하는데 있어 問題點이 있다.

24) 中國의 人名, 團體名, 書名은 中國音으로 읽어 排列하지 않고 우리 音으로 排列한다.

例 :

司馬遷은 '쓰마 켄'이 아닌 '사마 켄'으로
中央研究院은 '중 양 엔 쥬 위안'이 아닌 '중
양 연구원'으로
怎樣教勞作은 '쩐 양 짜오 라오 쉐'가 아닌
'쥬양교로작'으로

25) 標目語 중 國名, 學名 등 略語는 完全히 綴字된 것으로 간주하여 排列하지 않고 略語의 발음대로 排列한다. 但 人名, 地域名의 略語는 完全히 綴字하여 排列한다.

例 1; 한국의 대확대 이.이.시.(E.E.C.)수출증진방
안정, 영신.
韓國의 對擴大 E.E.C.輸出增進方案.
丁永信著.

例 2; 농약용 원료에 관한 브이.(V.)이.(E.)적 연구
이, 희일.
農藥用原料에 관한 V.E的 研究,
李喜一著.

但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나 略語로부터 完全形으로 參照를 해준다.

例 3; 로스엔젤리스 교포들의 직업실태.
박, 상근.
L.A. 僑胞들의 職業實態.
朴尙琨著.

26) 序數, 또는 年代가 書名 앞과 뒤에 붙은 것은 발

음되는 음절 차례, 즉 가나다順이 아니라 序數順 또는 年代順에 따라 배열한다.

a) 回數 또는 卷數

例 1;

- 일차보고서
- 이차보고서
- 삼차보고서
- 사차보고서

이 때 가나다 順으로 排列하면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

- 사차보고서
- 삼차보고서
- 이차보고서
- 일차보고서

例 2;

- 경영전서, 제 1권.
- 배, 응도.
- 經營者論

- 경영전서, 제10권.
- 김, 기철.
- 經營史.

b) 會議 大會 등

例 3;

- 아세아반공대회, 제 1회, 서울, 1961.
- 아세아반공대회, 제 5회, 서울, 1965.
- 아세아반공대회, 제 7회, 마닐라, 1976.

c) 國會

例 4;

- 한국. 국회. 문교사회분과위원회, 1964.
- 한국. 국회. 문교사회분과위원회, 1966.

d) 軍의 軍團, 師團, 聯隊 등

例 5;

- 한국. 육군. 제 1군단.
- 한국. 육군. 제 2군단.
- 한국. 육군. 제 5사단.

한국. 육군. 제 7사단. 5연대.

한국. 육군. 제 7사단. 7연대.

e) 憲法, 法令 등

例 6;

한국, 헌법, 1948.

한국, 헌법, 1963.

27) 書名에 포함된 숫자는 그 서명에 사용되어진 言語로서 完全히 綴字하여 배열한다.

例 1;

- 150曲集(백오십곡집)
- 101人의 詩人(백일인의 시인)
- 四分之 一處女(사분의 일 처녀)
- 40세까지 成功하는 法(사십세까지……)

例 2;

- 10은 십으로 한다(일십으로 하지 않는다)
- 100은 백으로 한다(일백으로 하지 않는다)
- 1000은 천으로
- 6 $\frac{1}{2}$ 은 육과 이분의 일
- 0.625는 영결 육이오.
- 256.784는 이백오십육점 칠팔사.

<다음 호에 계속>

